

가정 예배 모범

- 2020_11_29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1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불의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를 위한 이곳에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역대하 23:1-15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아달라 여왕에 대한 반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절)

아달라는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의 어머니로 아들이 죽자 유다에 왕이 될 만한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왕으로 있을 때부터 자기 욕망을 따라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망쳐냈고 여왕의 자리에 올라서는 이러한 악행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라의 불의하고 악한 행동에 맞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을 세우기 위해 세를 모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온갖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의한 일들과 마주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기를 내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2) 아달라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제사장 여호야다와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각각 어떤 일들을 담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제사장 여호야다는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우선 그는 곁에 있는 백부장을 비롯한 몇몇 지도자들을 통해 온 유다 마을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것을 약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성전의 문들과 왕궁과 다른 입구들을 지키도록 하였고 백성들은 성전 뜰에 있도록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사람들과 온 백성이 왕궁과 성전 곳곳을 지키는 가운데 요아스 왕은 호위를 받으며 성전으로 향했고 하나님 앞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확신이 있으면 용기와 지혜로 그 일을 해나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용기 있고 지혜롭게 순종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